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최 정 미
초당대학교 아동복지학과

Influence of Affectionate Child-Rearing Behavior on Primary School Children's Self Esteem

Choi, Jung Mi

Dept. of Child Welfare, Chodang University, Mua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affectionate child-rearing behavior on children's self esteem. The sample group was composed of 200 fourth and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tatistics used for this data were frequency, percentile, averages,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alpha,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the scores of affectionate child-rearing behavior(3.60), global self-worth(3.58), social acceptance(3.46) and behavior conduct(3.28) were higher than the mean scores. On the contrary the scores of cognitive ability(2.95), physical ability(2.94) and physical appearance(2.85) were lower than the mean score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gnitive ability based on gender($p < .01$) and global self-worth based on grade($p < .05$). Third, the influence of affectionate child-rearing behavior on children's self esteem was found to be significant due to the sub-areas of self-esteem. Affectionate child-rearing behavior affects all sub-areas of self-esteem. Affectionate child-rearing behavior affects cognitive ability($p < .001$), physical ability($p < .01$), physical appearance ($p < .01$), social acceptance($p < .001$), behavior conduct($p < .01$) and global self-worth($p < .001$). In addition, gender($p < .01$) affects cognitive ability and grade($p < .05$) affects global self-worth.

Key words: affectionate child-rearing behavior, self esteem

I. 서론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적응 및 건전한 인성발달, 나아가 긍정적인 자기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Coopersmith 1967; Harter 1983; Medinnus 1965; Wylie 1979)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역량 또는 유능함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신념으로 정의된다(Crocker·Major 1989; Harter 1982; Tashakkori 1993).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중요한 시기로 간주되어 왔으며(Manning 1989),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적응을 잘 예측해줄 수 있는 개념으로서 매우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즉 개인이 자신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생각, 판단, 태도, 감정 및 기대 등을 포함하며 자기 자신과 주변의 객관적인 환경요소들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통해 유아기에 그 바탕이 형성되어 인생전반을 통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발달하게 된다.

아동은 출생초기부터 가족이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발달단계별로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 나가게 되는데, 이때 부모의 양육행동의 중요성은 주로 영유아기를 중심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또래관계가 확대되고 또래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아동기와 그 이후에는 그 영향력이 감소된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아동의 정신적, 행동적 문제들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부모의 영향은 아동기와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밝혀지고 있다. 아동기를 중심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자아존중감을 포함하여 인지능력, 사회성, 외로움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복지 등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추세이다.

이렇게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들 수 있는데(박선자 1994; 안현숙 2000; Bronfenbrenner et al. 1984; Hoffman 1989), 양육태도 중 자녀발달에 중요하다고 가장 자주 보고되는 것으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들 수 있다(박선자 1994; 안현숙 2000; 이영순·김미라 2000; 임선심 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대체로 어머니의 수용 및 온정이나 애정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Gecas·Schwalbe 1986; Richards et al. 1991; Sears 1970). Coopersmith (1967)는 자녀에 대해 수용적이고, 애정적이며, 지속적인 관심을 지닌 부모와 계속적으로 엄격한 규율을 강요하는 부모사이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연구에서 자녀를 수용적·애정적인 태도로 양육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좀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녔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애정적인 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부모의 애정적 태도의 영향에 관해서는 김경연(1987), 이덕순(1980), 장도현(1985), 정숙자(1984)의 연구가 일관성 있게 애정적 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상관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 부모가 응답한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아동은 주변의 환경을 자신의 지각양식과 과거의 경험에 따라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 즉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실제의 양육태도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으며(오성심·이종승 1982)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초기에 하나의 단일 영역적 개념으로 간주되던 자아존중감이 최근에 이르러 다영역적 개념으로 간주되는 경향이다. 그러나 아동의 자아존중감 각 영역별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다. 선행연구 대부분이 자아존중감을 단일 영역으로 간주함에 따라, 영역별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아동기에 경험하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변인의 상대적 영향을 밝힌다면 자아존중감 각 영역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어떤 환경적 배려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제공될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알려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하여 초등학교 고학

년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선정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또한 애정적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자아존중감의 총점에 국한하여 연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별로 세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 지도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한편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변인으로서 아동의 성별과 학년을 고려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에 관한 보고를 살펴보면, Harter(1982)는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능력, 사회적 능력, 전반적 자아가치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고, 신체적 능력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게 지각하였다. 5-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를 알아본 Nottlemann(1987)의 종단적 연구에서도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능력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국내 연구의 결과에서도 김치영(1987)과 이진화(1993)는 남아가 신체적 역량에서 여아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Stigler 등(1985)의 5학년의 중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전반적 자아 가치에 대한 지각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Ford(1982)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나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Beneson과 Dweck(1986)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평가는 덜 긍정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순지(1990)의 연구에서도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자신의 인지적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화(1993)의 연구 또한 학업적 능력과 신체적 능력, 전반적 자아가치에서 연령

이 낮을수록 높게 지각하고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김경연(1985), 정숙자(1984), Brown 등(1984)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과 자아존중감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성과 학년에 따른 결과들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성과 학년을 포함시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봄,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주된 변인으로 애정적 양육행동, 성별과 학년을 선정하여 그 상대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개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의 의의를 두었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애정적 양육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성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성, 학년, 애정적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조사의 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 4, 6학년 아동 220명으로 하였는데, 불성실한 응답을 기재한 경우와 무응답을 제외한 200명의 자료만이 실제 분석에서 이용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200)

| Characteristics | Division | N (%) | Characteristics | Division | N(%) |
|-----------------|---------------|-----------|--------------------|---------------------|-----------|
| Gender | male | 109(54.5) | Grade | 4 grade | 89(44.5) |
| | female | 91(45.5) | | 6 grade | 111(55.5) |
| Mother's age | under 36years | 55(30.4) | Mother's education | under middle school | 30(16.2) |
| | 37-39years | 62(34.2) | | high school | 101(54.3) |
| | over 40years | 64(35.4) | | over university | 55(29.5) |

2. 검사도구

1) 자아존중감 척도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ter (1985)의 아동용 자아지각 척도(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에 기초해 우리나라 아동에게 적용하도록 개발한 이은혜 등(199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사회적 수용, 신체적 능력, 외모, 인지적 능력, 행동품행의 다섯 가지의 자존감 하위영역에 대한 자아지각과 하나의 총체적 자아가치 평가를 위한 전반적 자아가치감 등 6개의 하위영역,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으며,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인지적 능력(6문항)이 .83, 신체적 능력(6문항)이 .84, 외모(6문항)가 .76, 사회적 수용(6문항)이 .83, 행동품행(6문항)이 .71, 전반적 자아가치(6문항)는 .81로 나타났다.

2) 애정적 양육행동 척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연과 이숙(1990)이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중 애정적 양육행동 8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t-test,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일반적 경향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점수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본 결과, 애정적 양육행동(3.60), 전반적 자아가치(3.58), 사회적 수용(3.46), 행동품행(3.28) 점수는 5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점수인 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적 능력(2.95), 신체적 능력(2.94), 외모(2.85) 점수는 중간점수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Table 2 참조).

2. 초등학교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

초등학교 아동의 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Table 3 참조), 인지적 능력만이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아동의 성이 남자인 경우가 여자인 경우보다 인지적 능력을 더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의 학년에 따라서는 Table 4에 제시한 바대로 전반적 자아가치만이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아동이 6학년인 경우보다 4학년인 경우 전반적인 자아가치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애정적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아동의 성과 학년,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하위영역간의 관계

Table 2. General tendency of children's self esteem and affectionate child-rearing behavior (N=200)

| Variables | M | SD | |
|-------------------------------------|---------------------|------|------|
| Self esteem | cognitive ability | 2.95 | 4.69 |
| | physical ability | 2.94 | 5.66 |
| | physical appearance | 2.85 | 5.10 |
| | social acceptance | 3.46 | 5.12 |
| | behavior conduct | 3.28 | 3.48 |
| | global self-worth | 3.58 | 4.93 |
| Affectionate child-rearing behavior | 3.60 | 5.99 | |

Table 3. Difference in the children's gender on self esteem (N=200)

| Variables | Gender | M | SD | t value |
|---------------------|--------|-------|------|---------|
| Cognitive ability | male | 18.55 | 4.75 | 2.90** |
| | female | 16.64 | 4.41 | |
| Physical ability | male | 18.14 | 5.51 | 1.32 |
| | female | 17.07 | 5.81 | |
| Physical appearance | male | 17.44 | 4.84 | 1.00 |
| | female | 16.71 | 5.40 | |
| Social acceptance | male | 20.99 | 5.50 | 0.63 |
| | female | 20.52 | 4.65 | |
| Behavior conduct | male | 16.53 | 3.57 | 0.53 |
| | female | 16.26 | 3.39 | |
| Global self-worth | male | 21.46 | 4.59 | 0.02 |
| | female | 21.44 | 5.35 | |

** p<.01

Table 4. Difference in the children's grade on self esteem(N=200)

| Variables | Grade | M | SD | t value |
|---------------------|---------|-------|------|---------|
| Cognitive ability | 4 grade | 17.80 | 4.34 | 0.31 |
| | 6 grade | 17.59 | 4.96 | |
| Physical ability | 4 grade | 17.73 | 5.29 | 0.17 |
| | 6 grade | 17.60 | 5.95 | |
| Physical appearance | 4 grade | 17.41 | 4.99 | 0.75 |
| | 6 grade | 16.86 | 5.20 | |
| Social acceptance | 4 grade | 21.11 | 4.98 | 0.79 |
| | 6 grade | 20.51 | 5.24 | |
| Behavior conduct | 4 grade | 15.98 | 3.32 | -1.56 |
| | 6 grade | 16.76 | 3.59 | |
| Global self-worth | 4 grade | 22.45 | 4.54 | 2.48* |
| | 6 grade | 20.68 | 5.10 | |

* p<.05

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그 종속변인에 작용하는 독립변인들을 대상으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1.85-2.29), 간차 간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 종속변인별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자아존중감 중 인지적 능력에는 애정적 양육행동($\beta=.27$), 성별($\beta=-.2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변인들은 인지적 능력의 총 11%를 설명하고 있다. 즉 남아가 여아보

다, 애정적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인지적 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신체적 능력에 대한 지각은 애정적 양육행동($\beta=.22$)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변인은 신체적 능력의 총 5%를 설명하고 있다. 즉 애정적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신체적 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외모에 대한 지각 또한 애정적 양육행동($\beta=.23$)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변인은 외모의 총 5%를 설명하고 있다. 즉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외모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

| | 1 | 2 | 3 | 4 | 5 | 6 | 7 | 8 |
|--|--------|-------|-------|-------|-------|-------|-------|-------|
| 1. Gender | | | | | | | | |
| 2. Grade | .01 | | | | | | | |
| 3. Affectionate child-rearing behavior | .11 | -.16* | | | | | | |
| 4. Cognitive ability | -.20** | -.02 | .23** | | | | | |
| 5. Physical ability | -.10 | -.01 | .19** | .26** | | | | |
| 6. Physical appearance | -.07 | -.05 | .20** | .45** | .42** | | | |
| 7. Social acceptance | -.05 | -.06 | .30** | .51** | .48** | .45** | | |
| 8. Behavior conduct | -.04 | .11 | .20** | .37** | .21** | .50** | .34** | |
| 9. Global self-worth | -.00 | -.18* | .39** | .43** | .25** | .53** | .51** | .46** |

* p<.05 ** p<.01 Dummy : gender-male(0), female(1)
 grade-4 grade(0), 6 grade(1)

Table 6. Regression to the children's self esteem

| Dependent variable | independent variable | B | β | R ² | F |
|---------------------|-------------------------------------|-------|---------|----------------|----------|
| Cognitive ability | affectionate child-rearing behavior | .21 | .27*** | 0.11 | 10.39*** |
| | gender | -1.92 | -.21** | | |
| Physical ability | affectionate child-rearing behavior | .20 | .22** | 0.05 | 8.52** |
| Physical appearance | affectionate child-rearing behavior | .19 | .23** | 0.05 | 9.49** |
| Social acceptance | affectionate child-rearing behavior | .25 | .30*** | 0.09 | 18.33*** |
| Behavior conduct | affectionate child-rearing behavior | .12 | .20** | 0.04 | 7.56** |
| Global self-worth | affectionate child-rearing behavior | .31 | .38*** | 0.17 | 18.73*** |
| | grade | -1.47 | -.15* | | |

* p< .05 ** p<.01 ***p<.001

아동의 사회적 수용에 대한 지각은 애정적 양육행동($\beta=.30$)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은 사회적 수용의 총 9%를 설명하고 있다. 즉 애정적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행동품행에 대한 지각은 애정($\beta=.20$)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변인은 행동품행의 총 4%를 설명하고 있다. 즉 애정적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행동품행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높게 지각하였다.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에 대한 지각은 애정적 양육행동($\beta=.38$), 학년($\beta=-.1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변인들은 전반적 자아가치의 총 17%를 설명하고 있다. 즉 4학년이 6학년보다 애정적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전반적 자아가치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높게 지각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중 애정적

양육행동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4, 6학년 남녀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지,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성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애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별과 학년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애정적 양육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본 결과, 애정적 양육행동, 전반적 자아가치, 사회적 수용, 행동품행은 중간점수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적 능력, 신

체적 능력, 외모는 중간점수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애정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중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외모가 낮게 나타났는데 아동들이 이러한 측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 외모나 능력을 중시하는 최근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성과 학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인지적 능력만이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 자아가치만이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인지적 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Wiefield 등(1991), Eccle 등(1989)의 연구에서 수학능력이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남학생이 인지적 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은 것은 아직까지 우리의 문화 내에서 남아선호사상이나 성공에의 심리적 압박이 성에 따라 다르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위영역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인지적 능력을 제외하고는 차츰 우리사회가 성에 따라 아동을 다르게 대우하지 않는 성평등주의적 사고가 자리잡게 되었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전반적 자아가치는 6학년보다는 4학년이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전반적인 자아가치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Beneson과 Dweck(1986), Simmons와 Rosenberg(1973), Nottlemann(1987), Wiefield 등(1991), Eccle 등(1989), 이진화(199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어릴수록 자신의 능력을 실제 이상으로 과대 평가하다가 발달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기 능력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이 생김으로써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평가하고 더 정확하게 판단하게 된다는 Stipek(1981)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곧 중학교 진학을 앞둔 6학년이 4

학년에 비해 자신감을 상실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며 학업에 대한 동기도 낮다는 사실(Eccles · Midgley 1989)을 감안하면, 초등학교 6학년은 6년간의 학교생활 이후 최초의 학교 이동(진학)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므로 일시적으로 전반적인 자아가치가 저하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초등학교 고학년 부터 자아존중감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적 배려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다른 하위영역에서는 학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연구 대상의 연령차이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김미란(2002)의 연구와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중학교 1학년의 교사관련 자아와 학업 및 전반적 자아가 2학년보다 높았으나 나머지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김희화(1998)의 연구를 비교해 볼 때, 상급 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동일 학교에서 학년만 올라간 집단과 상급학교로 진학을 경험한 집단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10-12세의(4학년-6학년) 연령층의 아동들은 비슷한 발달수준에 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애정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중 인지적 능력에는 애정적 양육행동과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변인들은 인지적 능력의 총 11%를 설명하고 있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인지적 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높이 지각하였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아동의 인지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를 애정적으로 대하는 양육행동이 학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고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인지적 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높게 지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오순환(1991)이나 김기정

(1984)의 연구에서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지지해주는 것이다. 또한 여아보다는 남아가 인지적 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Wigfield 등(1991), Eccle 등(1989)의 연구에서 수학능력이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아동의 신체적 능력, 외모, 사회적 수용, 행동품행에 대한 지각은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변인은 신체적 능력과 외모의 각각 총 5%를, 사회적 수용의 총 9%, 행동품행의 총 4%를 설명하고 있다. 즉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신체적 능력과 외모, 사회적 수용과 행동품행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높이 지각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에 대한 지각은 애정적 양육행동과 학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변인들은 전반적 자아가치의 총 17%를 설명하고 있다. 즉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6학년보다 4학년이 전반적 자아가치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높이 지각하였다. 학년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Harter(1982)의 척도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대한 Nottlemann(1987)의 종단적 연구에서 사회적 수용에서 학년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6학년이 7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6학년에서 7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사회적 능력과 전반적 자아가치에서 감소를 보인 Wigfield 등(1991)과 Eccle 등(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평가를 덜 긍정적으로 한다는 Beneson과 Dweck(1986)의 연구결과와 전반적 자아가치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김미란(2002), 이진화(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적 발달과 경험의 축적 및 사회화 과정을 통해 변화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나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적응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인 변인은 애정적 양육행동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의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외모, 사회적 수용,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오선영 2003; 최정미 1999; Baruch · Barnett 1981; Dekovic · Janssens 1992; Hart et al. 1992; Hoffman · Saltzstein 1967; Lieberman 1977; Pettit et al. 1988; Rutherford · Mussen 1968)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애정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지지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느끼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긍정적이라고 보겠다.

둘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으로, 어머니들이 자녀를 애정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홍보하고, 구체적인 실천방법 등을 지도하는 부모교육에 관한 내용을 교과내용에 포함시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제외하고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인지적 능력에는 성별이, 전반적인 자아가치에는 학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에 따라 적절한 지도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넷째, 아동이 자신을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신에게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의미하는 전반적 자아가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춘기에 따른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으나,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들은 아동이 청소년기에 접어들기 전에 학업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능력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내용

을 포함시켜 아동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며,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도 학업위주가 아닌 인간 중심적 풍토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 애정적 양육행동만을 다루었는데, 양육행동에는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일관성 있는 규제, 적극적인 참여, 성취 등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연구되지 않은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과 본 연구에서 분석되지 못한 변인들(예: 어머니의 성격특성,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아동의 특성 및 또래관계 등)을 포함시킨 연구가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 김경연(1985). 아버지의 자경심 수준, 아동개인적 변인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자경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143-150.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자아존중·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김미란(2002).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김치영(1987).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과 학업성취.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 박선자(1994). 어머니와 직업·양육태도·유아의 자아개념간의 관계. *중앙대 석사논문*.
- 박성연·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안현숙(2000).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계명대 석사논문*.
- 오선영(2003). 방과 후 보호형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오성심·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연구노우트*, 11(1), 1-2.
- 오순환(199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개념간의 관계.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덕순(1980). 아동의 자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이영순·김미라(2000).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와 불안과의 관계. *춘해대논문집*, 145-165.
- 이은혜·신숙재·송영주(1992). 국민학교 3-6학년 아동을 위한 자아지각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생활과학논집*, 6, 175-191.
- 이진화(1993). 연령, 성별, 사회계층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지각.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 임선심(1998). 초등 1,2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시행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장도현(1985).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 정숙자(1984). 유아의 자아개념과 가정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순지(1990). 지능에 대한 개념 및 자아능력지각과 학업 성취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 최정미(1999).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변인의 인과모형 분석-어머니의 성인지 애착, 결혼적용, 애정적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Baruch GK, Barnett RC(1981). Competence-related behaviors of preschool girls.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103, 79-103.
- Beneson, JF, Dweck C(1986). The development of trait explanation and self-evaluation in the academic and social domains. *Child Development* 57, 1179-1187.
- Bronfenbrenner U, Alvarez W, Henderson C(1984). Working and watching employment and parents' perceptions of their three-year-olds childrens. *Child Development* 55, 1362-1378.
- Brown D, Fulkerson K, Furr S, Ware W, Voigt N(1984). Locus of control, sex role orientation, and self-concept in black and white 3rd and 6th grade male and female leaders in a rural community. *Developmental Psychology* 20(4), 717-721.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francisco : W. H. Freeman. Crocker, J., & Major, B.*(1989).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96, 608-630.
- Crocker J, Major B(1989).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96, 608-630.
- Dekovic M, Janssens JMA(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25-932.
- Eccles JS, Midgley C(1989). Stage/environment fit : Developmentally appropriate classrooms for early adolescents. In R. E. Ames and C. Ames(Eds.), *Research on motivation education*(Vol. 3). New

- York : Academic Press.
- Eccles JS, Wigfield A, Flanagan CA, Miller C, Reuman DA, Yee D(1989). Self-concepts, domain values and self-esteem : Relation and change at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57(2), 283-310.
- Ford ME(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23-340.
- Gecas V, Schwalbe M(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1), 37-46.
- Hart CH, DeWolf DM, Wozniak P, Burts DC(1992). Maternal and paternal disciplinary style: Relation with preschoolers' playground behavioral observations and peer status. *Child Development* 63, 879-892.
-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1983). Development perspectives on self-esteem. In P.H. Musse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4), pp.275-385. New York : John Wiley & Sons.
- Harter S(1985). *Manual for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 Harter S(1993). Cause and consequences of low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R. F. Baumeister(Ed), *Self-esteem :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New York : Plenum Press.
- Hoffman ML, Saltzstein HD(1967).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45-47.
- Hoffman L(1989).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in the two-parent family. *American Psychologist* 44, 283-292.
- Lieberman AF(1977). Preschooler's competence with a peer : Relations with attachment and peer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48, 1277-1287.
- Manning PC(1989). *Family functioning, sibling relationships, and a child's self-esteem*.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Institute of Integral Studies.
- Medinnus GR(1965). Adolescents' self-acceptance and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150-154.
- Nottlemann ED(1987). Competence and self-esteem dur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41-450.
- Pettit GS, Dodge KA, Brown MM(1988). Early experiences,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Richards MH, Gitelson IB, Petersen AC, Hurtig AI (1991). Adolescent personality in girls and boys : the role of mothers and fathers. *Psychology of Woman Quarterly* 15, 65-81.
- Rutherford E, Mussen PH(1968). Generosity in nursery school boys. *Child Development* 39, 755-765.
- Sears RR(1970). Relationship of early socialization experiences to self-concepts and gender role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41, 267-286.
- Simmons R, Rosenberg F, Rosenberg M(1973). Disturbance in the self-image at adolesc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 553-568.
- Stigler JW, Smith S, Mao L(1985). The Self-perception of competence by chinese children. *Child Development* 56, 1259-1270.
- Stipek DJ(1981).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own and their classmate's abi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 404-410.
- Tashakkori A(1993). Gender, ethnicity, and structure of self-esteem : An attitude theory approac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3(4), 479-488.
- Wigfield A, Eccles JS, Iver DM, Reuman DA, Midgley C(1991). Transi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 Change in children's domain-specific self-perceptions and general self-esteem across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552-565.
- Wylie RC(1979). *The self-concept :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Vol.2).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